

신규 지정 톨음·도약기업 사업설명회 성료

경진원, 신규 지정 32개 기업 대상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6월 11일, 톨음·도약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 기업 육성정책이다.

해당 사업은 △톨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혁신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도에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 종합심사를 거쳐 톨음기업 17개사, 도약기업 15개사 총 32개사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선정기업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6월 11일, 톨음·도약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및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성장

참석자들에게는 향후 3년간 단계별 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 되는 '레벨업(LEVEL-UP) 패키지 지원 사업'의 운영지침과 사업비 운용 매 뉴얼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어진 초청강연에서는 KT 전남·전북광역본부 AX혁신팀 손인호 팀장이 '업무 효율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중장기적 사업 목표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실무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담아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A기업 대표는 "지원사업 활용방안과 사업비 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성장사다리 기업 간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2일 성장사다리 전 참여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성장사다리기업 리더스 혁신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지정서 수여식과 더불어, 기업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 현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바이오진흥원, 수출 성장 발판 마련

전북 수산기업·유통 바이어 MOU 체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 현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도내 수산기업과 국내외 유통 바이어 간 구매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전북 수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수출 판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개의 도내 수산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국가 및 유통채널과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여한 이번 협약식에서는 약 130만불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으며, 향후 협의결과에 따라 추가 계약성과가 확대

될 전망이다. 한편, 업무협약 및 수출계약 체결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전북 수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내 유통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업들이 국내외 유통시장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바이어 맞춤형 제품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고창부안축협, 축산 관련 종사자 200여명 집합교육 실시

전북농협은 고창부안축협 본점과 부안지점에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축산관련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등에 대한 폭 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축산법에 의하여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6시간,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관련시설출입차량은 4년에 4시간 보수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한다.

교육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시스템을 통해 집합교육을 신청할수 있으며 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다.

이정환 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사료값 인상 축산농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임실 관촌 공공임대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료'

6월 중 착공... 인구소멸 대응·구도심 재생 효과 기대

전북개발공사가 임실군 관촌 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6월 중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개발공사와 임실군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임실군 관촌 지역에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

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임실 관촌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20세대 규모로 건설되며, 전용면적 84㎡ 60세대와 전용면적 59㎡ 60세대로 구성된다.

특히 섬진강과 사선대 공원을 조망할 수 있고, 전세대 4Bay 평면과 여유로운 주차공간(세대당 1.36대) 확보하는 등 임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이율리, 전북개발공사는 임실군 우수 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 59㎡, 80세대)도 6월 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하고 오는 7월 중 착공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북형 반향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도심지와 농어촌지역의 임대주택 가능부지 조성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임대주택공급 및 도시재생사업,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목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2025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위원장 정한성)'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에 신규 출범한 위원회로, 업계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촉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업

계·학계·법조계·연구계 등의 위원 20명이 새롭게 구성되어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되어 있어 공급원가에서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기업이 많은 만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로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행 연동제는 강행규정이지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맹점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전기산업엑스포 홍보관 개설

ESS 통합관리시스템 소개... 참여형 콘텐츠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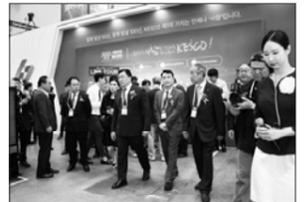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에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전기산업엑스포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전기설비·전력 산업 전문 박람회다.

올해 행사에는 발전·송배전·변전 기자재·원자력산업 등 관련 기업 110개 업체가 참여해 400여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사의 역할을 소개하고, 미래 에너지 안전 전략 등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의 주요 업무와 안전요령을 터치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최근 취업을 겪는 청년층의 고민을 달기 위해 채용관련 Q&A도 진행한다. 실제 최근 입사한 직원이 행사장에 상주하면서 구직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기안전관리는 필수"라며 "앞으로 전기안전 예방을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여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행매인